

## 보건료리의 본질과 역할

강 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건료리는 보건부문 일군들이 자기의 직업활동과정에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인간관계의 리치, 행동질서의 리치이다. 다시말하여 인민들의 건강관리사업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관계의 리치, 행동질서의 리치가 바로 보건료리이다.

각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의료상방조를 도모하여주는 보건활동에서도 인륜도덕의 리치가 작용한다. 보건부문 일군들의 보건활동과정에 작용하는 인륜도덕의 리치를 보건료리라고 한다.

보건부문 일군들의 보건사업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그 어느 분야보다 인륜도덕이 중시되는 사업이다.

보건부문 일군들에게 있어서 높은 의료지식과 기술을 소유하는것자체가 도덕적요구로 되며 보건부문 일군들이 건전하고 고상한 도덕적관계를 맺고 높은 책임성과 지극한 정성을 발휘하여 환자들을 극진히 돌보고 치료하는것이 중요한 도덕적요구로 나선다.

보건분야에서 이러한 도덕적요구를 반영한 행동규범이 바로 보건도덕이다. 다시말하여 보건부문에서 활동하는 보건일군들이 일상적인 의료봉사사업에서 량심에 기초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 보건도덕이다.

보건도덕규범은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보건부문 일군들호상간의 인간관계의 다양성 그리고 보건일군들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보건활동과 관련된다.

보건도덕규범들에는 의사들이 지켜야 할 도덕규범, 간호원들이 지켜야 할 도덕규범, 의료부문 지도일군들이 지켜야 할 도덕규범, 간병원 등 의료부문 보장부서일군들이 지켜야 할 도덕규범 등이 있으며 의료활동분야의 다양성에 따라서 소아과, 내과, 외과, 안과, 산과, 예방과 등의 전문과치료활동에서 지켜야 할 도덕규범과 의료기구, 제약부문에서 지켜야 할 도덕규범, 왕진, 주민들의 건강관리에서 지켜야 할 도덕규범 등 여러가지 도덕규범들이 있다.

보건도덕규범은 보건일군들의 보건활동과정에 체질화되어 그들의 고유한 도덕품성으로 전환되게 된다. 이것을 보건도덕품성이라고도 한다.

보건도덕품성은 보건도덕규범을 반복하여 지키는 과정에 체질화, 공고화된것으로 하여 일단 형성된 다음에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보건도덕규범들을 스스로, 자각적으로 지켜나가게 한다. 그러므로 보건도덕품성은 의사와 간호원, 간병원 등 보건부문 일군들이 인민들의 건강관리에서 자기의 도덕적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담보하는 중요한 도덕적요인으로 된다.

보건료리는 바로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보건부문의 의사, 간호원, 간병원,

보건부문 지도일군들이 지켜야 할 보건도덕규범과 보건도덕품성, 보건활동과정에 이루어지게 되는 도덕적관계와 도덕적행동의 리치를 밝힌것이다.

보건륵리는 의사, 간호원, 간병원, 보건부문 지도일군들의 다양한 보건활동과정에 지켜야 할 보건도덕규범들과 보건도덕품성들이 어떤것들인가 하는것만 포함하지 않는다.

보건륵리는 어디까지나 보건부문 일군들의 보건활동에서 보건도덕규범들을 왜 스스로, 자각적으로 지켜야 하는가, 고상하고 건전한 보건도덕품성을 소유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보건도덕규범에 어긋나는 불건전하고 부당한 관계를 배격하고 의사, 간호원, 간병원, 보건부문 지도일군들의 모든 보건활동이 인륵도덕의 리치에 맞게 건전하고 고상한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원리적으로, 리치적으로 밝힌것이다.

이로부터 보건륵리는 보건부문 일군들의 보건활동, 의료활동과정에 지켜야 할 보건도덕규범과 그들이 지니고 발휘하여야 할 보건도덕품성, 보건활동과정에서의 보건일군들의 도덕적관계와 도덕적행동 등 다양한 도덕적현상들의 리치를 포함하게 된다.

보건륵리는 보건부문 일군들의 직제별특성에 따라 구체화하여 의사륵리, 간호원륵리, 간병원륵리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사륵리, 간호원륵리, 간병원륵리 등은 모두 그들의 보건활동에서의 도덕적관계와 도덕적행동의 리치를 규제한 보건부문 직업륵리로서 의사와 간호원, 간병원 등 의료부문 일군들의 직업륵리의식과 도덕적책임감을 규제한 것이다.

제급사회에서 보건륵리는 제급적성격을 띤다.

개인리기주의가 지배하고 병원을 비롯한 보건기관들과 보건기구들이 자본가들의 수중에 장악되어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보건사업은 인민들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영업수단으로 되고있다.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의 보건기관들에서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륵적인 보건륵리가 지배하고있다.

오늘 자본주의사회에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로 전락되고 의사들호상간의 관계는 로골적인 경쟁의 성격을 띠고있으며 환자를 더 많이 끌어들여 돈을 벌기 위한 위선과 기만, 허풍과 험잡, 다른 병원과 의사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일삼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는바 이것은 부르쵸아적보건륵리가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은 각자가 책임질 문제이지 국가와 사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한 《보건륵리리론》이 광범히 대두되고있다. 어느 한 반동학자는 자기의 저서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재산정도에 따라 잘살거나 못 살수밖에 없으며 부유한 사람들의 수입을 가난한 계층을 도와주기 위하여 돌려쓰는것과 같은 질서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들의 건강보호사업은 국가가 맡아서 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가 하면 다른 한 반동학자는 《의사는 기본상 소상인이다. 의사는 수요자의 상업적대상으로 되고있는 임의의 다른 상인과 같이 그렇게 자기의 봉사를 제공한다.》라고 공공연히 떠벌이였다.

한편 부르쵸아보건리론가들은 자본주의적보건제도의 반동적본질을 은폐하기 위하여 의학은 제급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 모든 제급에게 골고루 봉사하는 전인륵적인 과학이니 박애의 상징이니 하면서 자본주의테두리안에서도 《인민을 위한 보건시책》이 가능한듯이 주장하고있으며 자본주의사회에서도 보건체제와 봉사방법의 개조, 자선사업과 후원사업으

로 인민들에게 평등한 의료봉사를 보장할수 있다는 개량주의적리론을 내놓고있다. 한때 미국에서 류포되었던 부르조아개량주의의 일종인 《류환설》의 창시자인 잔드는 자본주의 제도에서 근로자들의 질병은 그들의 빈궁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근본원인은 질병, 수입 부족, 자식수와 수입간의 불조화, 태만 등에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문제는 국가가 조정을 잘하고 방법을 개선하면 해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썩고병든 부르조아보건제도와 보건료리를 미화분식하려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건전하고 고상한 보건료리는 오직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참다운 인민적인 보건제도가 세워져 모든 보건기관들과 의료기구들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에만 해도 현대적인 치료설비를 갖춘 유선종양연구소와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류경안과종합병원 등 수많은 의료봉사기관들이 일떠서 인민들모두가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과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보건부문 일군들속에서는 인민들에게 당과 국가의 인민적보건시책이 더 잘 가당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와 기술을 깡그리 바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숭고한 도덕적의무로 여기는 고결하고 아름다운 보건료리가 지배하고있다. 우리의 의사, 간호원들을 비롯한 보건일군들속에서 환자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온갖 정성을 기울이며 환자의 소생을 위해 보건일군들호상간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지혜와 힘을 합치고 자기의 피와 살, 뼈를 아낌없이 바치는 미덕들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인민적인 사회주의보건제도와 사회주의보건료리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사회주의보건료리는 보건기관들과 보건부문 일군들속에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도덕적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보건료리는 보건부문 일군들이 건전하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지닌 인민의 참된 보건일군들로 준비하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보건정책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며 온 사회에 문명하고 문화적인 도덕생활기풍을 확립하여 문명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료리는 무엇보다먼저 모든 보건일군들이 건전하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지닌 인민의 참된 보건일군들로 준비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일군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정신도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보건일군들은 누구보다도 사상정신적으로 견실하고 도덕적으로 고상한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아무리 높은 의료기술과 기능을 소유하고있다고 하더라도 사상정신적으로 견실하지 못하고 도덕품성이 바르지 못한 보건일군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보건일군으로서의 임무를 다할수 없다.

그러므로 보건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할뿐아니라 높은 인간애와 뜨거운 정성, 청렴결백성 등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지니고 보건도덕규범을 성실하게

량심적으로 지켜나가는 참된 보건일군이 되어야 한다.

보건륵리는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결한 정치사상적품성의 내용과 높이, 그 형성발전의 합법칙성과 방도를 밝혀주고있다.

뿐만아니라 보건륵리는 보건일군들의 보건활동과정에서의 모든 행동방식들을 규제한 보건도덕규범들을 제시하여줌으로써 보건활동에서 도덕적인 행위와 비도덕적인 행위를 명백히 구분할수 있게 하는 기준을 준다. 이로부터 보건륵리는 보건일군들로 하여금 보건도덕규범에 자기의 모든 행동을 비추어보게 하며 고상하고 가치있는 행동의 목적과 수단을 선택하고 보건활동의 전과정이 도덕적인 과정으로 되도록 추동한다.

이와 함께 보건륵리는 보건일군들이 보건활동과정에 지니고 발휘하여야 할 보건도덕품성들과 그 형성과정의 합법칙성, 보건도덕품성을 발양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방도들을 밝혀줌으로써 보건일군들로 하여금 보건활동과정에 자신들이 지니고 발휘하여야 할 보건도덕품성들과 그 형성의 방도를 깊이 인식하고 건전하고 고상한 보건도덕품성을 체질화하여 완성된 보건일군으로 되기 위한 도덕적수양을 일관하고 꾸준히하게 하도록 한다.

보건륵리는 다음으로 보건일군들이 당과 국가의 인민적보건정책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명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보건부문 일군들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기대는 대단히 크다. 보건은 문명의 중요한 징표이며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문명강국의 주인답게 살며 일하게 하는데서 보건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기에 우리 당과 국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와 보건정책을 실시하고 보건일군들을 품들여 키워 그들을 당과 국가의 보건정책관철의 직접적담당자로 내세워주고있다.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도를 세워주고 훌륭한 보건기관들과 시설들을 건설하여 인민들이 병치료와 건강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헌신하게 하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보건정책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자면 보건일군들이 당과 국가,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기 직무에 헌신하여야 한다.

인민을 위한 당과 국가의 보건정책이 아무리 훌륭하고 정당하다고 하여도 그것을 직접 맡아 집행하는 보건일군들이 자기의 직무에 헌신하지 않으면 인민적인 보건제도와 정책이 은을 낼수 없고 나아가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영상을 흐리게 할수 있다.

보건륵리는 보건일군들로 하여금 보건사업을 당과 국가의 인민사랑을 꽃피우는 영예로운 사업으로 여기며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제때에 치료하여 혁명초소에 내세우는데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올바른 직업륵리의식, 보건륵리관을 심어준다. 때문에 보건륵리는 보건일군들로 하여금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당의 보건전사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 인민보건사업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열,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려는 높은 도덕적자각과 책임감을 심어준다.

보건륵리는 보건활동의 각이한 분야에서 인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이 인륵도덕의 리치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도덕규범들을 원리적으로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

여 보건일군들이 자기의 직무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의료기술기능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게 하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환자치료와 건강관리에서 지극한 정성을 발휘하도록 한다.

보건료리는 다음으로 온 사회에 문명하고 문화적인 도덕생활기풍을 확립하여 문명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료리는 보건부문 일군들의 보건활동에서뿐만아니라 일상생활과정에서도 건전하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모든 생활과 활동을 인륜도덕의 리치에 맞게 진행해나갈것을 규제하고있다. 때문에 보건료리는 보건일군들의 보건활동에서뿐만아니라 그들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사업과 생활에도 큰 영향을 주어 건전하고 문명한 도덕생활기풍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원래 보건은 문화에 속하는 중요한 형태의 하나이며 보건기관과 보건일군들은 문명의 선도자들과라고 할수 있다.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건강하고 문명하게 오래 살려는것은 사람의 본성적요구이며 사람의 이러한 요구는 보건기관과 보건부문 일군들의 보건활동을 통하여 보장되게 된다.

년령심리적, 직업적특성과 생활적특성이 각이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건활동을 진행하는 보건일군들의 하나하나의 언행이 군중에게 주는 영향력과 감화력은 매우 크다. 보건일군들의 보건활동에서뿐만아니라 일상생활과정에서의 문명하고 문화적인 옷차림과 몸차림, 행동거지와 생활방식 등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 문명을 선도하며 시대적류행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사람들은 보건기관의 보건일군들에게서 의료상방조를 받고 병치료를 하는 과정에 돈한푼 들이지 않고 건강을 돌보아주는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되며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고 빛내이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도덕의리적마음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

뿐만아니라 문화적이고 건전한 보건기관의 도덕적환경과 뜨거운 인정미를 가지고 인민들의 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온갖 지성을 바치고 정성을 기울이는 보건일군들의 도덕적행동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도덕적으로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되며 그에 자기의 도덕생활을 비추어보고 반성해보게 된다. 그리고 보건일군들의 도덕적풍모를 따라배워 자기들의 사업과 생활을 언제나 도덕적으로 하기 위한 새로운 결심도 다지고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애써 노력하게 된다.

모든 보건일군들은 보건료리의 본질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인민보건사업에서 자기의 도덕적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문명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보건료리, 도덕생활기풍